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2차 회의 보고서

참가단위:연대여성모임 연대(시바, 똑지, 헤라, 똑이, 시타)/ 이대 여성위원회(큐라, 람이, 노을)/계명대(무계)/ 동국대(태생)/성공회대(서영)/ 고대 여성위원회(양진)/ 살맛(산파, 열매)/

1. 전체 기조와 함께 우리의 핵심과제와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전체 기조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중적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타의 “해방은 결코 연기될 수 없다-여성 실업, 부수적 현상이 아니다.”라는 글을 간략하게 발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재의 정세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앞으로의 우리의 투쟁 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호를 구성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큰 바운더리로 현재의 문제와 우리의 활동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되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의 신규여성실업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포지션으로 사회단체와 차별적인 지점들이 존재하며 좀더 원칙적인 제기들을 담보해야 함에 대해 동의했다.

내용적으로는

현하의 실업문제의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신규채용이 줄어든 지금의 현실에서 신규 실업자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신규 여성실업자들에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해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못하다. 하기에 신규여성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하에 입직 과정에 대한 차별 철폐와 고용할당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정책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만듦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내지는 구조적으로 입직과정의 다양한 차별로 여성의 구직률을 낮추는 것을 관건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여성실업자들은 미조직의 상태라 자신이 목소리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더욱이나 구직에 대해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기에 여성실업자들에 대해서는 통계처리 방식에 비경제 활동인구를 포함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뾰족한 대안이라는 성별분업적인 공공근로와 인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구호를 정리해 보면: 몇가지 논란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서술하겠습니다.

1. 성차별적 해고를 반대한다.

=> 성차별적 고용조정 반대한다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평등적 해고는 찬성 한다는 것인가?라는 곡해의 가능성) 성차별적 해고로 표현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주장하는 구호로 적당할 수 있겠다.

-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남녀 차별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고 행정력을 현실화하라
-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라

2. 경제위기에 편승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한다.

: 현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 모성보호 축소를 반대한다.
- 간접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 5인 이하의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하라.

=>1,2번의 경우 사회단체에서 어느만큼 담보되는지를 파악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 할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던 이야기 까지 진행되었음. 다음회의에서 여성사회단체의 메이데이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정리하기

로 했다.

3.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하라

- 실업통계에 비경제 활동인구와 실망실업자를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라.
- 신규 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방안 수립하라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진출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적인 차별채용 엄단하라
- 고용기회 가로막는 군가산제 철회하라

=> 군가산제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이나 군미필자들과 같이 고용기회의 불평등, 박탈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란 제기가 나왔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래의 문제를 회피하는(군문화의 문제)발상에 대한 제기들도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 신규채용시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 미봉책인 인턴, 공공근로를 중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라!

=> 지금처럼 실업을 낮추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인턴사원은 폐지되어야 하기에 폐지의 주장을 외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적인 상황속에서 고려해 볼 때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턴과 공공근로의 폐지의 주장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

- 생산적인 무료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라.

- 실업급여 보장하라, 신규실업자들의 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무료교통카드 지급하라.

=> 실업급여에 대한부분은 실업기금의 예산확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단위들의 주장들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회의때 다시 한 번 검토 하기로 하였다.

=> 신규여성실업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상을 졸업한 신규실업자들의 경우 현재적으로 조직화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된다.

=> 여기서 시타가 제안을 했는데,

충북지역 “산업체 야간학교”에서 성희롱, 임금체불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한다.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70년대를 방불케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작업실내에 환풍기 설치, 개인 식판과 밥으로 식사를 줄 것, 근로기준법의 휴식시간을 엄수할것(현재 아침8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본 후 우리의 활동의 형태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타가 좀안간에 통신에 올린다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론화 작업과 서명전 정동을 임의로 정했으나, 충북여성독자노조와 통화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로 했다.

2. 특별 게시판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참세상 내에 사회단체 및 우리끼리의 정보공유를 위한 특별 게시판을 개설하기로 했다. 사실 이를 통해 처음에 의도했던 토론방을 개선하고자 했던 목표인 타 단위에 우리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담론화하는 작업들도 가능할 수있겠다. 그래서 시타가 게시판 책임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2 ~3일내에 참세상에 개설 할 것이다.

3. 준비팀 구성에 대하여

일단 정보통신팀: 특별 게시판 책임자(시타), 나우(시바), 참세상(산파), 하이텔(노을), 천리안(큐라)

교양학교준비팀: 현재 정책팀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교양학교 이후 유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논의된바는 아니지만 이팀이 선전물기획과 p기획의 역할을 담보해도 좋을 것이다.-산파, 큐라, 여진, 헤라

당일날 판 준비팀: 문화제 준비와 더불어 당일행사판을 기획하는 역할을 가진다. - 큐라, 산파, 시바, 폭지, 양진. 동대 1인, 램이, 노을, 서영

4. 민노의 만행에 대하여

통신방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5. 다음회의에서 논의할 것

전체 기초 점검과

사업기획안 완성, 교양학교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 다음회의는 수요일 21일 7시 성대 총여실에서 있습니다. 문화관 팀은 6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명위 확정>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으로 정해졌다. 짹짹

너무나 졸린 산파가 ^^